

다산포럼

“흉년이 들면 어린아이들이 더 불쌍하다”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흉년으로 굶주리는 해에 누렇게 떠서 나뒀구는 우리 백성이 누군들 왕정(王政)의 측면에서 구제해야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마는, 그중에서 가장 가련한 것이 어린아이들이다. 저 어른들이야 품팔이를 하거나 물을 길고 땀감을 해 가면서라도 살아 나갈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와 달리서 몸을 가리고 입에 풀칠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울부짖으며 살려 달라고 애원해 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다.” (자훈전적: 字恤典則, 정조 7년) 정조 시대 초기, 흉년이 들자 나라에서는 자훈전적을 반포해 당시 가장 불쌍한(可矜) 이들이 어린이들을 구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문건을 한글로도 작성하여 널리 알렸다.

에나 지금이나 흉년 또는 재난이 발생

하면 그 피해는 균등하지 않다. 지금의 코로나19 재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 형제들이 부모가 일 나간 사이에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사회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이 발달장애인 모자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 제주와 광주에서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에서 10세와 8세의 형제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던 중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아팠던 이들은 더 아프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는데 갖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 가정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사회에서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은 평시는 잘 보이지 않다가 재난에 처해 그 취약성이 잔혹하게 드러난다. 감염병 재난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 않, 그 위험과 파급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 저소득층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는 연구도 있고, 해외에서는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사망자의 상당수는 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발생했다.

비단 감염의 취약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살펴 보아야 한다. 돌봄이 끊기고 사회 서비스가 중지된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가족 내에서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성과 연대·연민을 가지고 초유의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지, 그 실력과 자원이 있는지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취약(脆弱)함은 영어의 ‘버너러빌리티’(vulnerability)의 번역어이다. 이 단어는 상처를 더 잘 받는다(wound)라는 라틴어에서 기인했는데, 단순히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를 더 잘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함은 고통과 상처의 불평등성과 편차를 의미한다.

서구 학계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이전에도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비단 재난 상황에서만은 아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0세기 복지국가의 근간이었던 가족과 노동에 기반한 사회조직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연 재난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사회안전망들이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취약성은 질병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이에 대한 문제의 가시화, 데이터의 수집, 정책적 개입 등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를 당한 인권의 형제도 가구 단위로 받는 생계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새벽 세 시에 편의점을 전전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

가족이란 사회단위는 더 이상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아동 폭력 등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 안전망 역시 이들을 보호하는 데 무력했다. 유례없는 재난을 당하면 아이들은 더 불쌍하다. ‘천지가 만물을 태어나게 한 본연의 뜻’(天地生物之意)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린 생명에 대한 보호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社說

부영주택 과도한 특혜 없도록 검증 철저히

부영주택(주)은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골프장 가운데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한 뒤 나머지 녹지에 대해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특혜’라면서 지역 사회의 보다 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포럼은 잇그제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공익 확대를 위한 간단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단계 정도 높이는 게 관례”라며 “그러나 부영골프장 사례의 경우 한 번에 무려 5단계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 측의 요구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현재 자연녹지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2종 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무려 5단계나 ‘종 상향’(種上向)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지

고 층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00세대가 건설되면 부영 측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의 ‘공공 기어 제도’나 광주의 ‘도시계획 사전 협상 제도’ 등을 도입해 공공 기여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부영 측이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나주시에 신청한 이후 혁신도시 곳곳에는 ‘나주 혁신도시가 부영동이다’ ‘한전공대 부지 공공, 거대인가 기부인가’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 펼침막 수십 개가 내걸렸다. 이는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공기업 노조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용도지역 변경은 나주시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 따라서 두 지자체는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명분으로 한 부영 측의 과도한 요구가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노인 독감 예방접종 시기 좀 더 앞당겨야

코로나와 독감은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렵다. 발열·인후통·기침 등 증상이 유사하다. 옮겨올 때는 코로나19와 함께 독감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의료·방역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예전 데 덮치는 격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독감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도 있다.

정지권에서는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놓고 연일 여야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야당은 통신티 지원액을 삭감하는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주장하는 데 비해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선다. 하지만 여당이 전 국민 대상은 아니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만큼은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독감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양이 못 된다

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방역 당국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순서를 정하고 대상자도 기존에 비해 약 500만 명 더 늘어난 총 1900만 명으로 확대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들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만 70세~74세는 10월 20일부터, 만 62세~69세는 10월 2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문제는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다. 62세 이상의 경우 한 달 후에도 접종이 가능한데 너무 늦다. 감기에 취약한 시기는 일교차가 심한 봄기를 환절기이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NGO칼럼

광주 남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건립을 앞두고



조경 (사) 가치보듬 대표

동계, 누렁이, 백구, 발바리, 바독이, 도독고양이...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까지, 그들이 불려지는 호칭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큰 변화.

지난 20년 동안 더디게나마 조금씩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수립과 실천,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듭하는 동안에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과거 동물권 단체에서 핵심적 과제로 주창해 왔던 ‘관(官) 주도의 동물 복지’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물 보호에 역행하는 동물보호소들의 이슈들을 겪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동물 정책의

중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그 의지를 수행할 주무 부서 공무원들의 자질 부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초에 저희 동물권 단체들이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무 부서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될 대형 사건들을 사전에 막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시는 2001년에 전국 최초의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광주 동물보호소’를 건립하여 수많은 우여곡절을 민·관이 함께 겪으면서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동물보호소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官) 주도 동물 정책을 실천했던 ‘광주 북구청’ 주무 부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적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조명하고자 합니다.

과거 광주 북구청 축산유통계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동물 복지를 향한 열정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지금의 광주시청 생명농업과 ‘동물보호계’로 그의

지가 이어져, 이름만 생명 존중의 도시였지 사실은 동물 복지 불모지와 같았던 광주시를 전국 지자체 동물 정책 사업의 모범적 사례의 하나로 이끌어 왔습니다. ‘광주동물보호소’ 뿐만 아니라 장차 동물 보호 정책에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광주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시청 생명농업과 동물복지계 공무원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남구청의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 설립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병내 남구청장의 동물복지에 대한 의지를 담은 남구 유기동물입양센터 건립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빚어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남구의 유기동물 입양센터 건립이라는 첫 시도가 순조롭게 시작하여, 가까운 미래에 광주시 동물 복지과 유기 동물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나머지 4개 구청에서도 힘을 더해 광주 전체의 동물 복지 향상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보성 동물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사건, 정읍 동물보호소의 개 식용업자와의 거래, 담양 동물보호소의 동물 학대 사건 등 그 처참한 현장들의 이면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묵인 등 동물 복지의지와 자질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못해 이행하는 선출직의 공약으로써 구세 맞추기식의 허울뿐인 동물 보호정책 또는 반 동물 보호, 심지어는 동물 학대로 역행되는 사례들의 시작선이 바로 일선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생명 존중 동물 복지 실천의 전국 제1의 지자체로 시작한 광주시의 20년 노력을 퇴보시키지 않도록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시민회 및 구의회에서 진정 어린 논의와 협조가 융합되어 유기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물론 시민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 고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어느 항공사 CF를 보고 있노라면 엔지 마음이 울려대진다.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의 불투명한 미래와 고사 직적인 관광산업의 현실이 오버랩되어 그런 모양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은 영역이 바로 관광이다. 업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말 많은 관광 종사자들이 이미 직장을 잃었다. 남아 있는 인력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의존해서 휴식이나 재택근무, 배치 전환 등 명맥만 근근이 유지하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대전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종래의 패키지 여행이 개별

자유 여행(FIT)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디지털·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관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뉴 노멀을 감수해야 한다.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여의도 국회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2021년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예산의 대폭 삭감이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내년도 관광 관련 예산안에 신규 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란 종전의 수도권 중심, 관 주도 관광산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관광혁신 거점

구축사업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업 상담센터 운영, 홍보 컨설팅 지원, 전통적 경영방식 개선 지원, 스타트업 창업·육성 지원, 미래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허브 구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관광 혁신 거점 마련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시도를 선정하여 5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부산시가 처음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인천시, 대전·세종시, 경남도가 선정돼 전국적으로 4곳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로 관광산업이 초토화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재도약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초 내년 예산안에 기존 지원센터와 신규 지원센터 사업비를 함께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신규 센터 예산을 삭감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예산 사정도 빠듯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는 기재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부처의 벤처기업 지원 예산 공모에 같이 하면 된다는 논리는 관광기업 보고 제조업이나

IT산업 벤처기업과 함께 경쟁하라는 소리다. 이는 아예 돈을 못 주겠다는 말이 나 다름없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다.

영세한 관광기업들의 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관광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곳도 국내외 관광명소임이 틀림없다. 광주와 전남은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관광 재단을 출범시키고 관광 활성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 내년 초 공모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서도 응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우리 지역구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예산 확보에 나서 주면 좋겠다.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내년엔 꼭 지원센터가 들어서 지역 관광 생태계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無等鼓

어든네 살 어머니와 마흔아홉 살 아들이 함께 길을 떠난다. 모자의 여정은 순례하듯 바이칼 호수, 몽골 초원, 고비사막, 파미르 하이웨이, 티베트 카일라스산(해발 6714m) 트레킹 막바지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는, 순례길의 정점에서 여든네 살 생일을 맞는다.

영화감독인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순례길을 동행하며 떠돌이 카페 라에 담는다. 얼마 전에 다뤄 왔던 ‘카일라스 가는 길’(감독 정형민)을 보았다. 이 영화는 나이 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80대 어머니는 사막이나 고원 등가는 곳마다 처음 겪는 ‘도전’이고 ‘모험’이지만 늘 명랑하고 긍정적이다. 기도와 맨손체조를 거르지 않으며 힘든 여정 속에서도 일기에 ‘나는 세상이서 가장 행복한 할광구’라고 적기도 한다. 영성미가 돋보이는 이 영화에 여든 넘은 어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든다.

한 관객은 이런 댓글을 달았다. “비바

랍을 견디고 눈보라를 헤치고 카일라스에 오르는 길은 우리가 살아 온 인생이었습다. 나는 84세에 무엇을 할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나이 들’을 꿈꾼다. 하지만 노화와 치매 혹은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자신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지우개처럼 지워 버리는 치매가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어제(21일)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협회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날’이었다. ‘나답게 나이 들’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선생은 4년 전 인터뷰에서 “흔히 70대는 해마다, 80대는 달마다, 90대는 날마다 늙어 간다고 한다”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적 능력, 친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간 평균수명 100세에 육박하는 ‘호모 헨드레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만의 소박한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하나 이뤄 보며 ‘나답게 나이 들’을 실행해 보면 좋을 듯하다.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